

제 9강 일본의 종교건축과 정원

1. 일본의 불교건축

가) 6세기 고대 - 전래기 : 6세기 중엽 백제로부터 불교 전래

- 1) 탑과 배치 *12강 일본의 고대건축, 고대 가람배치 참고
- 2) 아스카 양식(飛鳥様式) - 호류지(法隆寺)
엔타시스, 운형(雲形)의 마스(斗), 히지키(肘木)
기둥 바로 상부의 주두 밑에 사라토(皿斗, 접시모양의 굽받침)
고오란(高欄)의 긴자형 변형된 격자 무늬, 인자형(人字形)의 와리즈카(割束)

나) 헤이안시대 (784~1185) - 정토종계 사찰

- 1) 밀교건축의 사찰평면 : 산세를 따라 비대칭형
- 2) 다보탑: 만두형탑신, 옥개석(屋蓋石), 상륜(相輪), 4면의 모코시(裳階)
- 3) 귀족사회의 정토종 유행
저택안의 지불당(持佛堂), 묘오도오인 봉황당(平等院 鳳凰堂)
1051 에이쇼(永承)6년, 말법사상, 아미타당 건설
- 4) 화양 (和様, わよう)·立川流(たちかわりゅう) :

-성립배경: 헤이안 시대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두공은 다른 양식과 구별됨. 재래의 일본식이라는 의미에서 와요오(和様)라고 부름. 이 화양은 신양식(선종양이나 대불양) 수입 이후에도 계속 세력을 가지고 현재에까지 이어짐.

-양식적특징

기둥 위에만 공포를 배열하고, 주간에는 間斗束 또는 蟻股(かえるまた)를 두는 疏組(あまぐみ)형식. 유려함. 당나라 등의 건축양식이 일본화한 것.

원칙 : ①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다.

② 하나의 공포는 여러개의 三斗組의 조합이다. 즉, 平三斗와 出三斗

③ 삼두조가 받는 부재는 반드시 장재이다. 즉, 도리나 通肘木(튼장여), 보

④ 尾垂木이 사용되기도 한다.

종류 : 주주목, 평삼두조, 출삼두조, 연삼두조

*무로마치 시대나 에도 시대에 지어진 사사(寺社)의 건축도 전반적으로는 화양의 공포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세부(소로의 형태, 첨차의 비례, 쇄서의 곡선 등)를 보면 역시 시대양식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눈에 띈다.

다) 12세기 중세 - 신양식의 도입

- 1) 대불양(大仏様, だいぶつよう)·천축양(天竺様, てんじくよう)

-성립배경: 헤이안 시대 말기 治承4年(1180) 동대사 대불전과 남대문 등을 재건시, 승려 초오겐(重源)에 의해 당시의 남중국(북건성, 광동성 부근)의 양식이라고 생각되는 대불양(天竺様)이 채용됨. 초오겐 사후 급속히 쇠퇴.

-양식적특징:

挿肘木(さしひじき)-기둥위의 주두에서 출발하지 않는 첨차가 여러 단 기둥에 꽂혀있음
모든 주두와 소로에 굽받침 초각

호방함, 구조적 합리성(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구조를 만듦), 연등천장

-현존하는대불양:조오도시(淨土寺) 정토당, 도다이지(東大寺) 남대문, 개산당, 법화당에당

2) 선종양(禪宗様, ぜんしゅうよう)-당양(唐様, からよう)-建仁寺流, 힐조(詰組, つめぐみ)

-성립배경: 일본의 寺社건축사에 있어 화양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양식. 선종의 전래와 함께 수입되어 선종의 웅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며, 화양의 세부에도 큰 영향을 미침

-배치의 특징: 총문(總門), 삼문(三門), 불전(佛殿), 법당(法堂)이 중심축상에 늘어서고, 회랑이 에워싸는 대칭형 배치를 기본으로 한다. 법당(法堂) 뒤에 방장 위치. 회랑 외측에 승당(僧堂), 동사(東司), 욕실(浴室) 등이 배치

법당(法堂): 부처의 대법(大法)을 설법하는 장소

방장(方丈): 주지(住持)의 주거, 의식에도 사용

동사(東司): 선종사원의 변소. 西淨, 東淨

-양식적특징;

기단, 마루 대신 돌을 깔았음.

뜨메구미(詰造, つめぐみ, 다포): 공포가 뻥뻥히 배열되어 공포 사이에 화양과 같이 대공이나 화반 등이 놓일 자리가 없음. 전체적으로 10개 가까운 공포가 사용됨. 삼두조를 두 겹으로 놓는 것이 기본 형식

기둥: 소반(礎盤) 위에 세우고 상하에 찌마키(粽)

보가 기둥의 상부, 공포의 하단에 놓여, 공포가 상부가구를 받친다는 의미가 줄어듬 (우리나라 다포계와 차이),

扇垂木(おおぎだるき, 선자서까래) 사용

섬세함, 기교, 장식

3) 중세 본당 : 예당 + 불당, 외진/내진

라) 근세 예도시대(1600-1868)

막부 통치 이래 평화로운 상태-국내 여행의 증가

사원과 신사로의 순례여행

건축의 대중화-화려한 색, 조각, 본당의 구성

2. 일본의 신사건축

가) 神社의 기원

자연물의 숭배 .. 無神殿, 후대에 禮拜所만 지어짐

인격신의 경우 .. 宝庫 혹은 宮殿 .. 고대 신사 형식으로 이어짐

나) 神社의 구성 요소

本殿 .. 신의 집 혹은 보물 창고

拝殿 혹은 幣殿 .. 예배소

垣과 鳥居 .. 神域을 구분하는 장치

기타 .. 神饌所, 酒殿, 竈殿, 供水所, 神輿舎, 神樂殿 / 車舎, 着到殿 / 庁屋

다) 고대 신사 형식

神明造(しんめいづくり) .. 伊勢神宮 .. 도리칸 3칸, 보칸 2칸의 맞배집으로 직선적 의장을 가짐.

6개의 圓柱와 측면에 2개의 棟持柱가 있음, 掘立柱를 두고, 平入이며, 판벽 마감.

大社造(たいしゃづくり) .. 出雲大社 .. 도리칸 2칸, 보칸 2칸, 중심에 御柱가 있다.

맞배집으로 妻入이다.

住吉造(すみよしづくり) .. 住吉大社 .. 도리칸 4칸, 보칸 2칸의 맞배집으로 妻入이다.

정면은 가운데 기둥을 뺀고 그 자리에 입구를 만들었다. 내부가 2실로 나뉘며, 중간 벽에 문을 달았다.

라) 예배부분이 부가된 형식 (奈良시대 말기부터 平安시대에 걸쳐 개발된 형식)

.. 예당이 부가된 형식과 처마 만이 부가된 형식으로 구분된다.

八幡造(はちまんづくり) .. 宇佐神宮 .. 도리칸 3칸, 보칸 2칸의 内殿 앞에 같은 규모의 外殿을 붙여, 각각의 기둥이 맞배집을 이루는 것, 측면에서 보면 가운데 기와골이 생겨 우수가 모인다. 神明造에 外殿을 덧붙인 형식.

流造(ながれづくり) .. 현재 일본 신사 본전의 대부분을 점하는 형식

도리칸 3칸, 보칸 2칸의 본체 전면에 1칸 폭의 庇(ひさし)를 덧붙인 형식.

히사시는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본체로 계단이 시작된다.

히사시의 지붕과 본체의 맞배지붕이 만드는 긴 지붕선 때문에 流造라 부른다.

春日造(かすがづくり) .. 나라 春日大社 ..

사방 1칸 맞배지붕의 본체에 박공면으로 히사시를 덧붙인 형태.

마) 히사시로 둘러싼 형식 (平安시대 이후의 고안)

日吉造(ひえづくり) .. 日吉大社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본체와 그 정면 및 측면에 히사시가 덧붙여,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가 됨. 지붕은 맞배집 본체에 히사시가 나가므로, 정면에서 보면 마치 팔작집처럼 보임.

入母屋造 .. 대규모 신사의 본전에 사용되는 대형건축, 히사시를 포함하여 팔작집을 구성.

바) 本殿과 拜殿이 일체화한 형식

権現造(ごんげんづくり) .. 각각 팔작지붕으로 된 본전과 배전을 연결해 놓은 형식

근세의 영묘 건축에 많이 사용됨.

이외에 본전과 배전의 결합형식으로,凸자형 등의 변형이 생겨남.

3. 일본의 정원

가) 아스카(飛鳥) 시대 (593-709)

불교의 전래. 불교 가람의 조경.

불교사상과 봉래(蓬萊)사상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 - 대규모 개인 원림

추고천황推古天皇20년(612)-백제 귀화인 노자공(路子公)이 천황의 허락을 받아서 황궁의 남정(南庭)에 수미산과 오교(吳橋)를 만들

626-소아가문(蘇我馬子)이 정원에 연못을 파고 섬을 쌓음

657-비조사(飛鳥寺) 서쪽에 수미산상 만들

659-감수구(甘壽丘)의 동쪽 하상(河床)에 수미산을 조성

나) 나라시대(710-793)

봉래정원, 평면구성형태의 조망의 미를 중요시, 연못주변이 높은 누

굴도궁(橘島宮) 정원: 천황황태자의 저택, 일본서기와 만엽집의 기록

평성궁(平城宮) : 남원(南苑)

궁밖-서지궁(西池宮), 송림궁(松林宮), 성북궁(城北宮), 도지당(島池塘), 중도원(中島苑)

대지천(大池泉): 평성궁 남동쪽, S자모양의 유구발견(1975), 입석(立石), 호안(湖岸)석조

<A> 임천중도식(林泉中島式) 정원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의 조경이 전래된 것. 불교의 영향

연못 가운데의 섬: 신선이 사는 봉래산을 의미, 섬이있는 바다의 풍경 묘사

축산(築山), 폭포, 흐르는 물, 중국풍의 다리

다) 헤이안시대(794-1191)

1) 헤이안 전기(794-966) : 당나라의 대규모 원림건축 모방, 신선사상(도교)의 본격적인 영향

신천원(神泉苑): 헤이안교 궁궐남쪽. 헤이안초기의 금원(禁苑)

차아원(嵯峨院): 810-823년의 이궁으로 천황이 사망 후 大覺寺로 바뀜. 교토에 위치. 大澤池만 현존
규모260X180m, 수심2.5m

북쪽에 용신을 모시는 天神島, 동쪽의 작은 菊島, 물가와 섬의 입석. 인공폭포
서쪽에 대각사와 조망을 위한 남산이 위치

2) 헤이안 중후기(960-1191)

침전조 주택의 완성, 침전조 정원

조원지침서 作庭記 : 침전조 정원의 기법 소개

정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정토정원의 등장

정토정원: 초기에는 금당과 여못을 반들고 蓮을 심는 정도였으나 후대에 규모가 커짐
사원의 경역 전체가 원림 경관에 직접 관련. 금당,중도中島,남문을 다리로 연결
연못 가장자리부터 속으로 둥근자갈을 경사지게 까는 기법과 인공폭포
연못 속에 높이 2m정도의 입석을 세워 해안풍경의 연상
평등원平等院, 毛越寺址

 침전건축식(寢殿建築式) 정원-침전조의 남쪽에 만든 조경

마당: 중문랑과 침전조로 둘러싸인 넓은 뜰에는 白沙가 깔리고 비워둠

연못: 두세개의 섬. 가장 큰 섬에는 침전의 입구쪽으로 反橋를 걸고, 반대방향으로 平橋놓음

조전(釣殿, 쓰리도노): 정자의 기둥과 선착장기능을 겸하는 곳

유수(遺水, 아리미즈): 건물이나 익랑의 아래를 흘러 마당을 가로지르는 연못

라) 가마쿠라 시대(1192-1333)

송나라 선종(禪宗) 도입으로 가람배치 변화(축성, 대칭성)

산세의 기복을 이용한 교묘한 조망과 입체적인 디자인이 시작

무소소세키(夢窓疎石, 몽창국사) - 가마쿠라의 대표적 조경가, 정토종 사찰을 개조. 엄격하고 단순.

瑞泉寺(1327), 惠林寺(1330전후), 西芳寺(1340), 天龍寺(1345) 등

선종정원 : 앞뜰 평면이 좁고 깊. 前시대에 본당의 전면에 위치하던 園池가 본당의 안쪽으로 후퇴.

사찰의 사정원으로서의 성격강화. 배후에 구릉을 둔 절의배치에 맞는 입체적 조경
옥외공간은 일상의 종교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소로서 단독으로 계획됨

<C> 회유입천식(廻遊林泉式) 정원 (池泉廻遊式)

- 중심부에 연못을 파고 섬과 다리 만듦. 섬과 연못의 주위를 다니면서 감상
-가마쿠라시대 무가(武家)의 소규모 정원: 무소소세키(夢窓疎石), 대자연을 좁은 토지에 끌어들이
사이호사西芳寺(1340), 텐류우사天龍寺(1345)
-무로마치시대 이후: 땅가름(地割), 석조(石組), 정원건축의 독특한 발달. 감상을 위주한 정원
로쿠엔사鹿苑寺, 지쇼오사慈照寺
-모모야마시대: 호화로운 서원조. 화려한 정원. 다이고사醍醐寺 삼포인三寶院 정원, 니조성 니노마루

마) 무로마치 시대(1334-1573)

중국으로부터 산수화 유입: 2차원의 산수풍경에서 보는 원근감을 3차원화 하는 시도
정토정원, 서원조 건축, 고산수정원, 화도花道

<D> 고산수식(枯山水式) 정원

물을 쓰지 않고 모래나 돌만으로 해안풍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백사가 많은 교토지방에서 바저
암석을 세워 폭포상징, 돌의 배치로 반도와 섬, 백사로 물결모양 표현
선종사원의 서원처려 규모가 작은 마당에 꾸며짐. 유락, 산책이 아닌 방이나 마루에서 관조하는 정원
일본어로 가래산수이가れさんすい, 가래센수이가れせんすい, 가라산수이가らさんすい
교토의 大仙院, 龍安寺, 金地院
龍安寺(고산수정원+선종정원): 사원영역 바깥은 섬과 정자가 있는 대규모 연못
方丈의 우측에 다실, 전면에 23m x 9m의 장방형 마당, 석영사

바) 모모야마 시대(1576-1615)

茶庭園의 시작

<E> 다정(茶庭園) - 露地양식

다실로 들어가는 예비공간인 로지에서 손님은 주인을 기다림
다실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수목을 배치
로지: 우찌로지內露地 - 중문 - 소토로지外露地
화려한 서원 정원과는 달리, '와비わび와 사비さび'(가난함과 옛스러움)를 본위로 하는 단아한 정원

① 센노리큐千利休流풍

간소화하고 자연스러운 깊은 숲속의 분위기
껍질을 벗기지 않은 목재, 대나무, 갈대, 짚, 목책, 흙 등 자연소재 그대로 사용
다실 옆에 소나무와 삼나무, 담쟁이 넝쿨. 飛石(징검돌)과 자갈을 깔다
쓰꾸바이(물통), 세수통, 석등을 배치하는 등 특이한 재료와 기법 도입
오모데센계表千家 정원 - 교토. 리큐의 작품을 그의 아들이 재건.1910경 현재의 모습갖춤

② 고보리엔슈小堀遠州풍

조경수목에 인공을가하여 의도하는 형태를 만든다.
대담한직선, 인공적인 곡선

통일감이 있고 외관은 곱고 기교적이며 섬세
大德寺 孤蓬庵 정원

사) 에도시대(1603-)

장기간의 평화로 호화, 다정의 완성. 서원조와 사치풍의 정원 유행. 민가에도 소규모 茶庭 유행
淨水를 이용할 수 있는 산기슭 경원과 해수나 강물을 유입시킨 海水池園 조원
서양의 정원과 혼합된 절충식 정원, 造園書

<F> 에도임천식(江戸 林泉式) 정원 - 고보리엔슈小堀遠州풍

에도시대 다실풍의 서원형에 맞추어 코보리엔슈小堀遠州가 발전시킨 정원
연꽃을 중심으로 섬을 만들고 그 주위에 몇 개의 다정茶庭을 배치
나중에 중류층에서도 만들기 시작하여 대중화됨
교토-가쓰라 이궁(桂離宮), 슈가쿠잉이궁(修學院離宮), 오카야마-코오라쿠엔(後樂園)

<G> 축경식(縮景式) 조경

에도시대 후기.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축소시켜 묘사. 매우 작은 규모.